

여주시·의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힘 보탠다

석유화학소재공학과 등 3개 학과 지역산업 연계 개설 추진 지역대학 위상 회복·인재 육성 위해 교육부에 건의문 보내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전남대와 통합 후 침체된 옛 여수대 전신인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첨단학과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의회는 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교육부에 신청한 첨단학과 신설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교육부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인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교육첨단학과 신설을 신청했다. 신설 학과는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1개 학부, 2개 학과로 정원

130명 규모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교육부 의견서에서 "지난 2006년 통합 당시(전남대·여수대) 약속한 통합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재정지원도 축소돼 여수캠퍼스의 정원은 해마다 줄고 매년 약 150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 위기와 축소는 지역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첨단학과 신설을 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앞서 지난 6일 전체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로 보냈다.
최근 정부가 대학 첨단학과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도 침체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첨단학과 신설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학령인구 급감 등 시대적 변화 때문에 전국 대학, 특히 지방대학은 어느 곳이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우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지난 2006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여수대는 통합 이후 지역거점대학으로서 도약할 것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이뤄진 한의대 설립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학과 축소, 정원 조정 등 대학 규모가 계속 축소됐다.
실제 통합 이전 여수대는 4개 단과대학, 입학정원 1219명의 종합대학 체제로 경쟁력을 갖춘 학교였지만, 통합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올해 3개 단과대학, 입학정원 702명으로 40% 이상 규모가 크게 줄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지역대학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의회는 이번에도 건의문을 통해 여수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등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은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며, 여수시의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라며 "한의대 설치 등 전남대와의 통합 양해각서 내용 중 이행된 것이 거의 없어 여수시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전남 제1수산도시이자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이 들어서 여수에 석유화학소재공학과·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신설은 필수이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학과 신설은 첨단분야 관련성과 지역산업 연계 및 활용 계획 타당성에 따라 교육부 심사를 거친 뒤 2월 말께 결정되며, 2021학년도 모집부터 적용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 지켜라” 여수시의회 결의문 채택...이행 촉구

여수시의회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김행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2년 임시운영 허가 당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수시에는 단호한 조치로 여수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해상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 판결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구 여수포타)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km 구간 조건부 임시 운영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채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운영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차장 미확보 등 조건 미비로 전남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행정 지원을 통해 2014년 12월 첫 운행 시작 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뒤 전국적 명성을 얻으며, 2018년 기준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 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고, 전남도의 정식 운영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들쭉날쭉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을 상대로 '3% 기부금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

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2017년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해상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결의문에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양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관광콘텐츠 확충 위한 해군 퇴역함정 도입 여수시민 62.6% "찬성"

여수시민 62.6%가 해군 퇴역함정 도입을 찬성했다. 호국충절의 관광도시 여수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여수시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해군 퇴역함정을 통한 관광콘텐츠 확충 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총 1007명이 참여해 이 중 62.6%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의견은 21.5%였다.
찬성 이유로는 해군 함정이 호국충절의 관광도시 여수와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볼거리 확충에 도움이 될 것(32.6%), 해군 함정의 대중적 인기(14.8%)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투자·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70.1%)이라고 우려했다.
해군 퇴역함정의 전시 장소로는 선소해역 33.1%로 가장 많았고, 해양공원(23.9%), 소호 요트장(17.5%), 오동도(16.2%) 순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해군 퇴역함정 도입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1300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를 위해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군 퇴역함정 공원은 서울 한강공원, 강릉, 김포, 울산, 포항 등 10여 곳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지킴이 '특목'

절도범 검거 등 개소 이래 4251건 대응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 행복을 위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40분께 충무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을 모니터 링 중 확인하고 112 상황실에 통보해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에도 충무동과 중앙동 일대에서 주차 차량 출입

문을 잡아당기는 등 절도 미수가 의심돼 112에 신속히 통보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파·속지게 한 뒤 야간근무 관제 요원이 오후 10시23분께 용의자들을 발견, 집중 추적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2012년 5월 문을 연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과 전문 관제요원이 교대로 근무하며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차량털이와 취객상대 절도, 야간 주거 침입 등 시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5대 강력범죄 등 지금까지 총 4251건의 대응 실적을 거뒀다.
통합관제센터 내 생활안전체험관은 교통·화재 등 생활안전체험과 CCTV 비상벨 체험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유치원·초등학생 등 6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 안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매년 100대 이상 방범용 CCTV를 신설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절도 용의자 검거 등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